

NEWS & NEWS

News & News

“긴급정보 빠르고 신속하게” 치협, 대 회원 휴대폰 문자서비스 실시

긴급한 현안문제 등이 발생할 경우 회원들이 자신의 휴대폰을 통해 빠르게 소식을 받아볼 수 있는 서비스가 시행된다.

치협은 그동안 준비기간을 거쳐 지난 12월 정기이사회에서 대 회원 서비스 강화를 위해 1월 1일부터 휴대폰을 통한 문자서비스 업무를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공보위원회(위원장 이원균)가 대회원 홍보를 위해 제안한 SMS(Short Message Service)를 통해 치협은 앞으로 회원들에게 긴급히 공지해야 할 사안 등이 발생할 경우 회원 휴대폰을 통해 발 빠르게 전달할 계획이다.

이 업무는 총무위원회(위원장 김성욱)에서 관장해 진행되며, 현재 치협 홈페이지를 관리하고 있는 브레인컨설팅을 통해 서

비스가 실시된다.

시행초기에는 현재 치협 홈페이지(www.kda.or.kr)에 등록, 휴대폰 번호가 입력돼 있는 1만3400여명에게 우선 발송될 예정이다. 문자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회원이나 기존 번호가 변경된 경우 홈페이지에 들어와 개인정보를 새로 변경하거나 치협 사무처에 전화(02-498-6320~6)로 신청을 해야 한다.

이원균 공보이사는 “휴대전화를 통해 회원들에게 공지할 내용을 즉시 전달할 수 있도록 SMS(문자서비스)를 실시한다”며 “시행초기에는 정기적인 발송없이 필요한 경우에 한해 서비스를 시행해 나가면서 점차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News & News

치과의사국가시험 실시 안 협회장, 시험장 방문 ‘격려’

제59회 치과의사국가시험이 1월 19일 자양중학교에서 진행됐다. 이날 국가시험에서는 964명이 접수한 가운데 6명이 응시를 취소하고 9명이 결시해 949명이 응시했다. 응시율은 98.4%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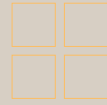
특히 외국대학 졸업자 중 예비시험을 통과한 4명만이 응시해 올 해도 외국치대 출신 합격자는 최저치를 나타낼 것으로 보인다.

1교시(100분간)에는 구강내과학, 치과교정학, 구강병리학, 구강생물학 영역, 2교시(115분간)에는 치과보철학, 소아치과학, 구강악안면방사선학, 치주과학을, 3교시(125분간)에는 구강악안면외과학, 치과보존학, 구강보건학, 치과재료를학 보건의약관계법규 영역을 시험봤다.

합격자 발표는 29일 국시원 홈페이지(<http://www.kuksiwon.or.kr>) 및 치협 홈페이지(<http://www.kda.or.kr>), ARS 자동전화(060-700-2353)를 통해 발표된다.

한편 이날 안성모 협회장은 국시가 치러지는 자양중학교를 방문해 국시장을 둘러보면서 시험이 안전하게 치러지는지 점검했다.

특히 안 협회장은 “현재 국시에 적용되는 과목제는 문제가 있다. 우수한 성적을 가졌음에도 일부 과목의 한 문제 때문에 떨어지는 경우 등 불합리한 면이 있기 때문에 과목제를 없애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국시원장에게 의견을 전달했다.



‘치약·칫솔 바로 알고 쓰자’ 치협·식약청 공동 책자 펴내

치협과 식품의약품안전청(이하 식약청)이 공동으로 최근 올바른 칫솔질과 관련한 안내책자를 발간했다.

치약과 칫솔의 올바른 사용법을 담은 ‘치약! 바로 알고 바로 씹시다’라는 책자가 그것.

이 책자에는 ▲올바른 칫솔 사용법을 비롯해 ▲치약의 성분 ▲사용하는 치약의 적당량 ▲치약의 효능 ▲치약 사용시 주의할 점 등이 담겨 있다.

식약청 의약품팀 관계자는 “일상생활에서 가장 많이 쓰는 제품 중 하나가 치약과 칫솔이지만 올바른 사용법에 대해 제대로 알고 있는 소비자는 많지 않다”면서 “이번에 발간된 이 책자에는 평소 소비자들이 궁금해 하는 내용들이 모두 담겨있다”고 전했다.

식약청은 이 책자를 전국 각 보건소와 학교 등에 배포할 예정이다.

“1만명 등록 목표 최선 노력” 치협 학술대회준비위 회의

치협 학술대회준비위원회(위원장 안창영)는 1월 22일 치협 회관에서 회의를 열고 2007년 제46회 종합학술대회 및 치과기재전시회에 대해 논의하면서 등록 1만명을 목표로 성공적인 학술대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기로 다짐했다.

안창영 부회장은 “내달 10일 대구에서 전국 시도지부학술이사 간담회를 개최할 계획”이라며 “1만명 등록을 목표로 홍보하는데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안 부회장은 또 “학술대회가 일반인들로부터 호응을 얻을 수 있는 하나의 방법으로 아름다운 가게를 운영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며 “대여치가 지난달 아름다운 가게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한 바 있어 대여치를 통해 아름다운 가게를 운영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장기택 학술이사는 “학술대회를 여기저기에서 많이 개최하고 있는 상황에서 등록 인원을 늘리기 위해 여러 가지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며 “학술대회를 이용해 동창회를 여는 등 회원들도 적극적으로 참여해줄 것”을 부탁했다.

올해 개최되는 학술대회는 학술과 가족의 만남으로 ‘패밀리 페스티벌’을 지향하면서 주말을 이용해 공부하려는 치과 의사들을 배려, 미취학 어린이를 대상으로 놀이방을 운영하고

초·중등생을 대상으로 스타크래프트 게임대회를 진행하기로 해 보다 많은 가족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획했다.

또 연극을 사랑하는 치과 의사모임이 ‘황금연못’이라는 제목의 연극을 학술대회 기간 동안 진행할 예정이며, 코리안심포니의 오케스트라 공연도 패밀리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준비된다.

학술강연은 박상철 서울의대 교수가 ‘장수의학’을 주제로 기조연설을 하며, ▲수복치의학 ▲임프란트 ▲심미치과 ▲Future Dentistry ▲일본 치과계 현황 ▲노인치의학 ▲스포츠치의학 ▲보철 ▲Tooth Bio-Engineering ▲진료실 감염 등을 주제로 하는 특강이 마련돼 있다. 또 신약인 엄홍길을 초청해 노인전익에 대해 들어보는 교양특강과 성주인태내셔널 대표인 여성 경영인 김성주 사장을 초청해 여성 리더십을 주제로 한 강연을 추진할 예정이다.

아울러 ▲미니 임프란트 ▲개원의를 위한 임프란트 치료법 ▲노년층을 위한 임프란트 수복 ▲진정법 ▲보건의료정책 ▲Digital Dentistry ▲레이저 Dentistry ▲근관치료학 등을 주제로 한 심포지엄이 마련되며, 심미치과를 주제로 한 6개의 임상강좌가 진행될 예정이다.